

# 原電故障과 運轉員被曝 크게 減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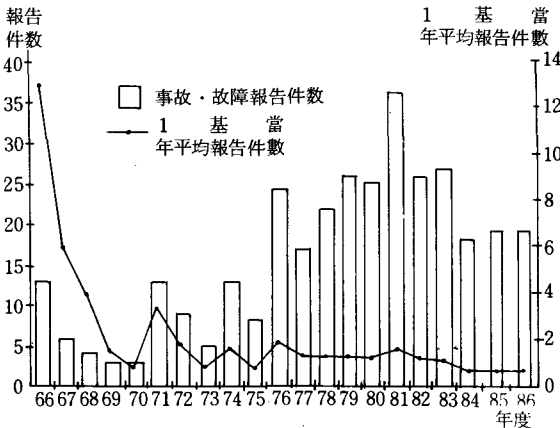
日本通商産業省에서 綜合發表

日本 通産省은 1986년 6월 18일 日本原子力發電所에서 있었던 故障 및 被曝狀況을 종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原電 1基당 事故·故障件數는 0.6건으로 3년 연속 과거의 最少水準을 기록했고 運轉員 1인당 평균 피폭량도 0.18렘으로 前年度의 0.23렘보다 더욱 下廻하고 있어 해마다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日本 通産省이 作成한 資料에서 原電의 故障과 被曝 低減傾向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原子力發電所の 事故·故障報告件數와 年平均報告件數



## 3年 連續 過去 最少

1986년도에 電氣事業法 및 「核原料物質, 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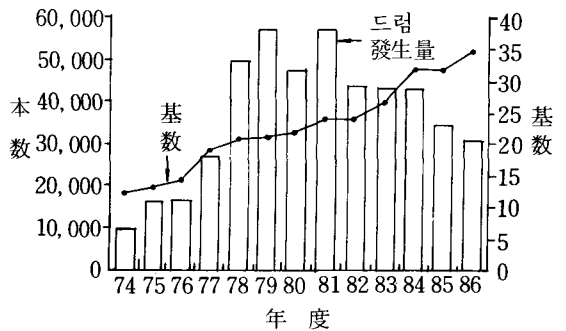
燃料物質 및 原子爐 規制에 관한 法律」이 定한 바에 따라 電氣事業者가 報告한 原電의 故障건수는 19건으로 前年度의 19건과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1基當 年平均件數는 0.6건으로 1984년 이래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건의 내역은 運轉中 自動停止가 5건, (전년도 4건), 運轉中 手動停止 6건(전년도 8건), 定期檢査에서 發見된 것이 8건(전년도 7건)으로 되어 있다.

19건의 主된 原因을 管理要素別로 分類하면 製作管理의 不適切이 8건, 補修管理 不適切이

드림發生量과 基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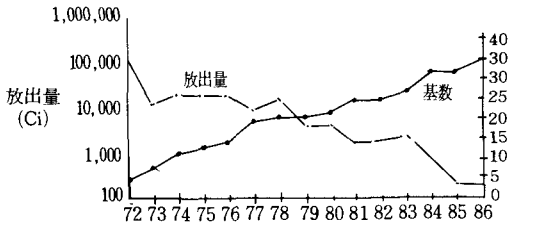
9건, 其他 2건으로 나타났다.

特記할 것은 어느 경우의 事故, 故障에도 原子力發電所 주변환경에 미친 放射能의 影響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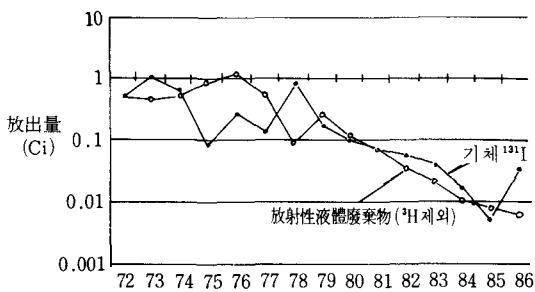
한편 1977년 3월 3일자 通産大臣 通報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미한 故障은 30건(전년도 28건)이 있었다.

日本 通産省은 앞으로는 現在의 原子力發電所의 높은 信賴性을 유지 향상시켜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輕水爐에 관한 技術개발, 改良의 推進, 事故, 故障을 포함한 運轉經驗情報의 活用, 運轉員 및 補修要員의 資質向上을 積極적으로 펴 나가야한다고 결론지었다.

放射性稀가스의 放出量과 基數



氣體<sup>131</sup>I 및 液體廢棄物(<sup>3</sup>H제외)의 放出量



### 進陞되는 被曝低減

放射性氣體廢棄物 및 放射性液體廢棄物의 방출량은 모든 原子力發電所에서 「發電用輕水型原子爐周邊의 線量目標値에 관한 指針」에 따라 시설주변의 線量目標値인 年間 5 밀리렘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年間放出管理目標値를 충분히 밀돌고 있으며 해마다 低減傾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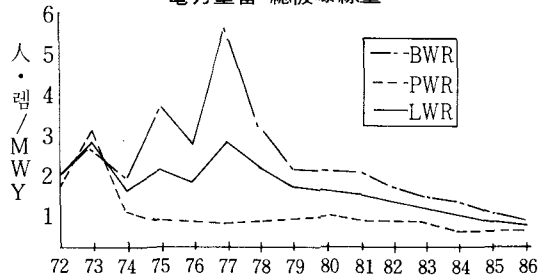
또 固體廢棄物의 관리에 있어서도 年度別推移 및 현재의 관리상황으로 볼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

發電所 從事者의 個人被曝實績도 어느 原子力發電所이건 「原子爐 등 規制法」이 定한 許容被曝線量을 下廻하고 있다.

더구나 1986년도에 實用發電用原子爐에서의 從事者의 總被曝線量은 10.98 人·렘으로 前年

度보다 1.061人·렘을 下廻하고 있다.

電力量當 總被曝線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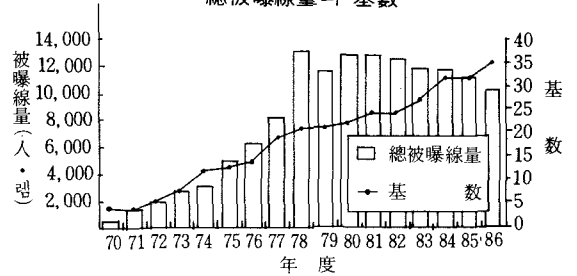


또 從業員 1인당 평균피폭선량도 0.1 렘으로 전년도의 0.22렘보다 감소되어 모두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被曝線量의 低減현상은 ①作業의 自動化·遠隔化에 의한 定期檢査의 合理化 ②低코발트材·耐蝕性鋼의 採用 ③製造技術의 向上과 함께 溶接線의 削減 등에 의한 것이다.

日通産省에서는 原子力發電所의 從事者被曝管理의 重要性에 비추어 앞으로는 作業의 自動化·遠隔化 등에 의한 輕水爐技術의 高度化로 被曝線量을 一層 低減시키고 동시에 放射線管理의 철저로 被曝線量을 줄여가고자 電氣事業者에 대한 지도를 펴 나가고 있다.

總被曝線量과 基數



平均被曝線量(렘)

